



정창모

1987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보철과 전공의
 1992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
 1994 : 6월 미국 UCLA치대 방문교수
 1999 : 일본 구주치대 방문교수
 현 재 :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부교수

임플란트를 이용한 상악 전치부 수복은 가장 어려운 치과 수복술식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상악 전치부 수복물이 갖춰야할 요구조건으로는 심미, 기능 및 발음 등을 들 수 있다. 발치 후 잔존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난 상악 전치부 무치악부위에서 임플란트 지지형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하여 이러한 요구조건, 특히 심미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치료결과를 얻고자 하는 노력은 치과의사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임플란트 치료술식이 심미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연조직 및 골조직의 결손 상태, 임플란트의 식립위치, 보철 수복 재료나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치료계획에서 보철물 장착까지 보철과, 외과 및 기공실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외과적으로 위축된 치조골을 재건하기 위하여 골조직과 연조직에 대한 다양한 증대술식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재건된 양호한 치조골 외형 하에서 생역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적절한 개수의 임플란트가 심미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적절한 위치(협설적, 근원심적 및 상하적)에 매식되어야 한다. 또한 심미성뿐만 아니라 치주위생과 인접치아의 건강을 위하여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그리고 임플란트와 인접치아 사이에 적절한 간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보철적으로 이러한 주위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만이 복잡한 상부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하며 심미적인 보철물 제작이 가능하다.

본 연재에서는 상악 전치부 무치악부위를 임플란트 지지형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하여 수복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임상적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찰해 보고, 외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몇 가지 임상증례를 통하여 보철 수복적인 해결방안을 같이 토론해 보고자 한다.